

<p>믿음 지혜 실천</p>	<h1>BUDDHANARA</h1>	<p>FAITH WISDOM ACTION</p>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기도 및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 시 전법기도 법회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2시-4시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108 호실

새벽기도: 아침 6시 30분-7시 (아침예불 및 참선)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사찰에서 아침공양을 제공 합니다.)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9am. (매주 토요일 9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이달의 법구경

옳지 않은 행위나 죄악은
내가 꾸며내고 내가 만든 것이니,
단단한 돌이 무른 돌을 갈아내듯
미혹한 사람 파멸로 이끄네.

**Aay wrong or evil a man does, is born
in himself and is caused by himself; and
this crushes the foolish man as a hard
stone grinds the weaker stone.**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9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한국불교, 간화선 · 금강경만 고집할 것인가

실상사에서 지리산 야단법석 개최

"간화선(看話禪,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법)이 최고의 불교수행법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그런데 간화선이 수행도량 안에서 어떻게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되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 (도법스님)

"장님이 눈을 뜨는 방법은 수백 수천 가지다. 간화선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간화선을 종지(宗旨)로 하는 조계종 선방에서 염불선이나 위파사나(남방불교 수행법)를 하는 것은 괜찮지 않다고 생각한다. 영어를 가르치는 곳에서는 영어로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혜국스님)

17일 오후 전북 남원 실상사에서 운영하는 실상사 작은 학교. 스님과 일반 불자 수백 명이 모여 불교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野壇法席)'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은 특히 한국 불교 조계종의 핵심 수행법인 간화선이 너무 어려워 일반 대중과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스님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이는 데 대한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14일 시작한 '지리산 야단법석'의 폐막을 하루 앞둔 이날 법석에는 선수행을 주로 하는 선원(선방)스님들의 대표격인 전국선원수좌대표 혜국 스님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건드린 주제는 간화선의 유래부터 그 수행법의 장점과 문제점, 세속의 물질주의에 물든 불교계의 관행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었다.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조계종단을 향해 후학을 기르는 교육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불교계에서 이처럼 노장, 소장 스님들과 일반 불자까지 어울려 불교의 갈 길에 대해 공개토론에 나선 일은 전례가 없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 불교는 간화선 제일주의에 빠져 있다?

혜국 스님은 '간화선 제일주의에 빠져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라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수행담과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드러냈다. 혜국스님은 성철스님의 지도 아래 화두를 들고 수행하면서 반드시 깨달겠다는 일념으로 하루 5천배씩 10만배를 하고, 또다시 10만배를 한 후 해인사 장경각에서 자기 오른쪽 손가락 네 마디를 불사른 일화로 유명하다. 혜국스님은 "간화선은 중도와 연기법을 깨달을 수 있는 수행법으로 우리 조계종사에 큰 보배다. 간화선의 병폐는 간화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화선을 잘못 받아들이는 수행자들의 문제다"라며 "다른 나라에 있다면 목숨 걸고라도 배워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혜국스님은 자신을 낮추고 사회에 봉사하는 하심(下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내가 49년간 중노릇을 했는데 얼마나 하심이 됐느냐는 아직도 의문이다. 무서운 지적이다"라며 "불교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로 서면 하심은 저절로 되는 것이다. 세계관은 섰는데 습관이 못 따라가는 것이 문제다. 예로부터 간화선은 수행과 삶을 하나로 하는 것을 지향했다"고 말했다.

선원 내부의 수행풍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도법스님은 "선방에서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혜국 스님은 "내가 승려 생활을 시작할 때는 선방 스님들이 200명도 채 안 돼서 선방 갈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2천여명이 된다"며 "지금도 선방에서 어떤 지도방법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바뀔 만큼 지도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최근 한 불자가 '깨달았다'고 하기에 들어보고 '아니다'라고 했더니 자꾸 우기더라. 그래서 몽둥이로 한번 쳤더니 폭행으로 형사고발을 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불교계를 이끌어 나갈 스님과 불자 등 인재를 키우는 일에 선원이 앞장서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혜국스님은 "교육 문제에 선방이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조계종단 차원에서 한 번도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돌이켜 보면 각목을 휘두르는 스님이 언론에 나와 불교계 망신을 시킬 때 선방이 있어서 그나마 불교의 명망이 유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법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는 교육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공약을 선방들이 앞장서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하자 혜국스님은 "교육이 되지 않아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옳은 방법을 찾아낸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원 수좌들이 중앙종회 등에 대표로 가면 예외없이 선원 수좌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관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소의경전은 금강경만?

앞서 15,16일 법회에서 조계종 최고의 학승으로 불리는 무비스님은 조계종이 소의(所依)경전으로 금강경을 삼는 데 대해 논의해 보자는 화두를 던졌다. 소의경전이란 수행과 전법(傳法),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경전을 의미한다.

무비스님은 "금강경이 조계종에서 제일 각광받는 경전으로 전해지게 된 것은 선불교의 역대 선사들이 특별히 애독했고, 조계종의 연원인 조계 6조(祖) 혜능선사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비스님은 "금강경은 대승불교가 완전하게 발달하기 이전 초기대승불교에 해당하는 경전이어서 완전한

불교, 이상적인 불교를 표현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익산 사자암 향봉스님은 17일 법석 후 기자간담회에서 "부처님의 말씀인 만큼 금강경이 미흡하다, 미흡하지 않다는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조계종은 대승경전도 배우고 초기경전인 아함경도 배우는 통불교이면서 금강경 한 권만 소의경전으로 내세우는 데 모순은 있다"고 말했다. 향봉스님은 "일본 불교의 경우 종파를 떠나서 묘법연화경(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해서 법화경을 강원 교재에서 뺐다. 하지만 현재 한국 불교에서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경전은 화엄경과 법화경"이라고 주장했다.

◇안거 해제비는 불교계 어두운 그림자

불교계의 세속화, 물질화에 대한 지적도 거침없이 쏟아졌다.

향봉스님은 3개월간의 동안거, 하안거가 끝나면 선방을 운영하는 절들이 안거에 참여했던 스님들에게 거액의 해제비를 주는 것은 큰 병폐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에 모 사찰에서 안거 해제비로 700 만원을 줬다고 알려졌는데 올해는 이에 도전해 신기록경쟁에라도 나선 듯 어느 사찰에서는 750 만원으로 해제비를 올렸다. 뭇돈을 쥐게 된 스님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고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한다. 이런 썩어빠진 모습은 분명히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스님은 "안거를 하는 선원 중 10%에도 못 미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체 불교계의 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향봉스님은 '큰스님'으로 불리는 스님들의 수행 깊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방장스님들이 내리는 법문을 제자가 대신 써 주는 일이 많다. 이런 스님들이 간화선 수행을 한 후학들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대학에서도 모교 출신이 아닌 학자를 교수로 채용하는 등 변화가 일고 있지만 사찰에서는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기 사찰 출신이 아니면 강주나 조실, 방장이 절대 될 수 없는 이런 풍토는 불교계의 폐쇄성과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기사에서 발췌-

백성호 기자의 현문우담

생활 속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불교의 경전은 팔만사천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걸 270자로 요약한 게 『반야심경』이죠. 그래서 부처님 법의 골수가 『반야심경』에 다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반야심경』도 딱 여덟자로 요약할 수가 있죠.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입니다.

그런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색은 뭐고, 공은 또 뭐야?" "무슨 뜯구름 잡는 소리냐?" 주로 이런 반응이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더 황당하게 여기죠. "역시~불교는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잖아." 과연 그럴까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손에 쥐면 어떻게 되나요? '펄떡펄떡' 뛰죠. 마찬가지로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펄떡펄떡 뛰면서 '숙숙'하고 숨을 쉬는 말입니다. 살아있단 말이죠. 이제 두 손으로 그 '물고기'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나의 일상을 향해 '휘~익!' 던지세요. 지지고 묶는 일상 속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들여다볼까요.

#풍경 1: 먼저 '색즉시공'입니다. 바쁜 아침 출근길, 열차가 느닷없이 끼어들죠. "빠~앙!"하고 경적을 울립니다.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죠. 그 화가 '색(色)'입니다. 그런데 색을 붙들면 항상 나만 괴롭죠. 게다가 '열차도 분명 급한 이유가 있겠지'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양보를 해줍니다. 순간 화는 사라지고 말죠. 어디로 갔을까요. '공(空)'으로 들어간 겁니다. 색이 공이 되는 순간이죠. 그게 '색즉시공'입니다. 컴퓨터로 따진다면 일종의 '포맷'이죠. 이제 질문이 들어오겠죠. "왜 포맷을 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화가 난 마음을 계속 붙들면 어찌 될까요. 회사에 가서, 점심을 먹고, 퇴근을 할 때까지 '아침의 짜증'을 안고 있다면 '색즉시공'이 될 수가 없죠. 왜일까요? 내가 계속 '색'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색'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업(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툭! 툭!' 내려놓는 겁니다. 출근길의 짜증뿐만 아니죠. 칭찬 후의 뿌듯함도, 이별 뒤의 아쉬움도, 성공한 뒤의 자만심도 '툭! 툭!'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포맷될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출렁이는 창조의 바다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탁!"하고 화를 내려놓는 순간을 들여다보세요. 더 이상 '열차'에 마음이 묶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어떠한 마음도 일으킬 수 있는 창조의 공간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그렇게 포맷한 마음의 자리가 '공(空)'입니다.

#풍경 2: 그럼 '공즉시색'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공(空)이 색(色)으로 화(化)하는 거죠. '지지고 묶는 마음'이 아니라 '포맷된 마음'에서 생각과 행동을 내는 거죠. 거기에는 출근길의 짜증, 남편과의 말다툼, 아이의 성적표를 보고 난 실망감 등으로 인한 연쇄 파도가 없습니다. 짜증의 연장선이 아니라 내게 정말 필요한 마음을 골라서 쓰는 거죠. '오늘 회의에선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 '올 추석 부모님 선물로 뭐가 좋을까?' '어제 다뤘던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사과하지?’ 결국 출근길의 생산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출근길뿐만 아니죠. 나의 하루, 나의 일상, 나의 삶에 대한 생산성이 달라지는 거죠. 온갖 색깔과 모양으로 마음을 그리고, 다시 백지로 돌아가고, 다시 마음을 그리고, 다시 백지로 돌아가고. 그렇게 창조와 포맷, 창조와 포맷을 거듭하며 마음을 굴리는 일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자연을 보세요. 저 앞의 나무와 새, 바람과 구름, 산과 들도 매 순간 색으로, 또 공으로, 색으로, 또 공으로 몸을 바꾸며 존재하죠. 그래서 여름이 간 자리에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간 자리에 겨울이 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그렇게 숨을 쉬는 거죠. 그 호흡법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 중앙일보에서 발췌-

FWBO 와 정명(正命)기업, 윈드호스(Windhorse)

서구에서 가장 흥미롭고 개혁적인 불교단체로 상가락시타(Sangharakshita) 스님이 세운 ‘서구불교의 친구들(The Friends of the Western Buddhist Order: FWBO)을 꼽을 수 있다. 영국 캠브리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자급자족형인 불교로서 특히 정명(正命)을 통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FWBO(The Friends of the Western Buddhist Order)란?

불교가 서양으로 가서 그 모습을 바꾼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며, 서양인에게 맞는 불교로 새로이 창조됐다는 칭송을 받는 단체이다. 불교센터(수행의 장), 거주 공동체(쉼의 장), 협동조합(일의 장)이라는 세 지부가 한 곳에 모여 서구 산업사회에서의 불교 사회를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 건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

FWBO는 부처님이 설하신 팔정도 중에서 정명(正命), 즉 바른 직업으로 생계를 삼는 것을 통해 새로운 이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단체이다. FWBO는 경제적 자립을 해야 정신적 자립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수익사업을 위한 정명 기업 윈드호스 무역사를 설립했고, 회원들에게도 정명의 원리에 맞는 직업 선택을 권유하고 있다. 어떤 생산이나 서비스 활동도 혼자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FWBO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체제와 원칙 하에 다양한 정명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식품 가게, 채식전문 식당, 인쇄소, 보험사, 조경사 등이며, 주력사업은 윈드호스 무역사이다. 또한 어떤 종파에도 속하지 않는 보편적 불교를 가르치고 있는 FWBO에는 재가와 승가의 구분이 없다. 다만 회원은 십계를 받을 뿐이며 ‘다르마를 따르는 자’라는 이름을 받을 뿐이다. 그 이름은 남자의 경우는 다르마차리(Dharmachari), 여자의 경우는 다르마차리니(Dharmacharini)이다.

상가락시타(Sangharakshita)스님

FWBO를 세운 상가락시타 스님은 1925년 데니스 링우드라는 이름으로 노동계급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1950년 사미계를 받았다. 그는 인도 다질링에서 <마하보디 저널(Mahaa Bodhi Journal)>의 공동 편집장을 맡으면서 티베트 인들에게 밀교를 배우고 암베드카르 박사의 불가촉천민 불교 개종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렇게 인도에서 20년간 불교 운동을 한 후, 67년 영국으로 온 상가락시타 스님은 큰 꿈을 품게 되었고 마침내 FWBO를 설립하게 된다.

정명 기업, 윈드호스(Windhorse)

팔정도에서 ‘정명(正命, samyak ajiva)은 인간과 동물, 식물과 땅에 이로움을 주거나 적어도 최소한의 해를 미치지 않는 직업을 갖는 것이다. 살생, 도둑질, 울바르지 못한 성행위, 거짓말 또는 마약이나 술을 파는 일이 포함된 직업은 정명이 아니다. 정명의 실천을 위해서는 사랑과 동정이라는 이상을 거스르는 일 없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정명 기업 윈드호스는 무역사와 에블루션 선물가게, 출판사와 그린즈 식당 등을 경영하는 불교도들이 주를 이루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고 있다.



FWBO에서 운영하는 정명기업들. 왼쪽부터 윈드호스 무역사, 출판사, 쇼펍, 오가닉 마트, 요가스튜디오.

FWBO의 주력사업인 선물도매상 윈드호스 무역사(Windhorse Trading) 직원들은 아침 일과를 청동 타라 보살상 앞에 앉아 티베트어로 독경과 염불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캠브리지에 소재한 윈드호스 무역사는 영국에서 고속 성장하는 100대 기업에 속해있다. 또한 공정무역(Ethical Trading)을 실천하는 윈드호스 무역사는 인도네시아 자바와 케냐, 상하이와 치앙마이 등지에서 수공업 생산자들과 함께 제품을 생산한 뒤, 영국과 아일랜드, 스페인 등 18개 선물가게에서 판매한다. 이 수익금은 윈드호스 트러스트(Windhorse Trust)를 통해 불교 부흥과 생산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쓰이고 있으며, 과테말라와 발리, 중국에서 학교 건립은 물론 태풍과 지진 피해 지역의 긴급구호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정명 기업 윈드호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뿌리를 이미 오래 전부터 깊이 내리고 있었다.

지장경과 지옥얘기는 부처님 말씀인가요?

경이나 교리는 문자의 틀로만 보는 것 아님; 삶의 고통을 풀어주는 바른 해법이라야 함

문 : 백중기도를 하면서 <지장본원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보더니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이 아니라고 하면서 독송할 가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지옥을 설명하신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들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답 : <지장본원경>은 인과의 원리와 결과를 철저히 밝힌 경전입니다. 그러나 자들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어떤 이들은 대승경전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도 합니다.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대승비불설(大乘非佛說)’을 강조하며, 오직 <아함경> 등의 초기불전만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합니다. 불교의 역사적인 흐름이나 여러 상황으로 봐서는 학자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장은 언어문자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지옥에 대한 설명은 대승경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초기경전에서 소상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예로 부처님의 설법에서 비교적 초기의 것으로 추측되는 <숫타니파타>의 ‘꼬갈리아의 경’에는 부처님께서 한 사건을 계기로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과 그 지옥의 고통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지요. 이처럼 지옥의 얘기가 인과의 말씀은 부처님께서 모두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실재하는 것이냐를 두고 따지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현상들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이라는 실물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끝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 고통을 멈추게 하고 해탈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승경전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오래전에 일본학자들로부터 시작된 불교학 연구의 측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래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전개된 것이라면 불설(佛說)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가르침의 내용을 중시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만을 불경(佛經)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라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경전도 스님들이 수백 년간 외워 전해온 것을 나중에야 문자화하였기 때문이지요.

외형적인 것은 모두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대승경전이 편찬되었다고 볼 때, 가르침의 핵심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의 몸과 정신이 태어날 때의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자식이라 하고, 또 끊임없이 육체와 정신상태가 변해왔지만 여전히 ‘나’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역사적인 입장에서만 경전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자유롭게 하며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겠지요.

-불교신문 법문 및 교리에서 발췌-

우란분절 백중기도

칠월 보름 백중절 환한 달빛 속에
목련존자 지극한 효심 따라 천도의 정성 올리오니
먼저 가신 조상님 인로왕 보살님 따라
정토에 왕생하여 전정한 열반의 법열을 누리소서.

육도 윤회 중생들과 외롭게 떠도는 영가들이여,
탐. 진. 치. 삼독의 어둠 벗어나
한 가닥 불심을 회복하소서.
해탈의 원적산을 어서 속히 오르소서.

무명 세월 속에 한없이 지은 중생의 죄업을
두 손 모아 참회하오니,
지옥. 아귀. 축생의 가없는 죄보 중생들

우란분절에 올리는 저희의 작은 정성
 은 법계에 두루 회향하오니,
 악한 세상 벗어나
 감로의 청량 법문 모두 얻게 하소서.
 무간 지옥에도 연꽃이 피어올라지이다.

불기 2553 년 (2009 년) 우란분절 맞이 하여 미국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불국사)에서는 8 월 30 일 73 위 영가위패를 모시고 우란분절 천도기도를 봉행했습니다. 천도기도를 동참해 주신 신도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도 제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기도 동참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쓰여집니다.

- 불기 2553 년 (2009 년) 우란분절 (백중) 천도기도 동참자 명단-

1. 망 강석주 대종사 선영 영가 (비구니 연암 선각 복위)
2.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애혼고혼 각 열위 일체 인연 영가 (비구니 연암 선각 복위)
3. 망 시부 남평후인 문해경 영가, 망 시모 인천유인 채정조 영가 (행효녀 무량화 문봉순 복위)
4. 망 시숙부 남평후인 문재경 영가, 망 시숙모 평산유인 신갑연 영가 (행효녀 무량화 문봉순 복위)
5. 망 부 남평후인 흥법 문정모 영가 (행효자 문성훈 복위)
6. 망 조모 밀양유인 손덕연 영가, 망 모 김해유인 진학미 영가 (행효녀 박수민 복위)
7. 망 부 김해후인 김원근 영가, 차옥녀 영가 (행효자 김현웅 복위)
8. 망 조부 청풍후인 김유근 영가, 망 조모 인동유인 장소녀 영가, 망 부 상산후인 김금진 영가 (행효녀 김동희 복위)
9. 망 풍양조씨 일문권속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조남국 복위)
10. 망 풍양조씨 집안 며느리 일체 영가 (행효녀 현심행 김설아 복위)
11. 망 부 김해후인 김형기 영가, 망 외조모 정씨유인 정동순 영가 (행효녀 김선영 복위)
12. 망 부 영광후인 김민채 복위 (행효녀 김정훈 복위)
13. 망 경주이씨 선망부모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이백승 복위)
14. 망 선망부모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Lawson Robinson)
15. 망 안동권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성락 권혁만 복위)
16. 망 청주한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문수지 권효정 복위)
17. 망 부 전주 후인 이귀남 영가, 망 모 남원 유인 양선산 영가, 망 언니 전주 유인 이호섭 영가 (행효녀 이호임 복위)
18. 망 부 밀양후인 박일선 영가, 망 형 밀양후인 박정신 영가, 망 동생 밀양후인 박정수 영가 (행효자 박정근 복위)
19. 망 조부 하양 후인 허수근 영가, 망 조모 여남석 영가, 망 부 하양 후인 허봉선 영가, 망 빙부 경주후인 김 정호 영가, 망 매 하양유인 허창분 영가 (행효자 허정석 (근일) 복위)
20. 망 부 진양후인 강석모 영가 (행효자 강용택 복위)
21. 망 모 정씨 유인 정명단 영가 (행효자 김추윤 복위)
22. 망 부 원주후인 원용기 영가, 망 백모 달성유인 서병희 영가 (행효자 원상희 복위)
23. 망 부 심씨후인 심의학 영가 (행효자 심용택 복위)
24. 망 부 청주후인 한기일 영가, 망 모 이씨 유인 이정옥 영가 (행효녀 한경련 복위)
25. 망 조부 김해후인 김오룡 영가, 망 조모 파평유인 윤순엽 영가, 망 부 김해후인 김영철 영가, 망 자부 원주변씨 변응규 영가 (행효자 김대원 복위)
26.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도광 이찬혁 복위)
27. 망 선망 부모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이용성 복위)
28. 망 선망 부모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신숙례 복위)
29. 망 선망 부모 달성배씨 일체 영가 (행효자 배제현 복위)
30. 망 선망 부모 탐진 최씨 일체 영가 (행효녀 최문선 복위)
31. 망 오빠 탐진후인 최치남 영가 (행효녀 최문선 복위)
32. 망 밀양 박씨 일동 영가 (행효자 박래경 복위)
33. 망 김?김씨 일동 영가 (행효녀 백련화 김효혜 복위)
34. 망 창원 황씨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황현식 복위)
35. 망 밀양박씨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법왕자 박계영 복위)
36. 망 부 은진후인 송호창 영가 (행효자 고려 송보영 복위)
37. 망 부 진주후인 강대학 영가 (행효녀 극락심 강효정 복위)
38. 망 선망 부모 유주무주 애혼 고혼 각 열위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안대원 복위)
39. 망 선망 부모 유주무주 애혼 고혼 각 열위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김상화 복위)

40.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범인 조성기 복위)
41.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월광명 우주화 복위)
42. 망 형 남양후인 홍대경 영가 (행효자 홍대선 복위)
43. 망 부 연일후인 정지학 영가, 망 오빠 연일후인 정원조 영가 (행효녀 청정행 정혜주 복위)
44. 망 일체유주 무주 일체 인연 영가 (대구 아미사 신도회 복위)
45. 망 부 고무래 후인 정득조 영가 (행효자 정순범 복위)
46. 망 나주정씨 정시홍, 망 도광김씨 김성례 영가 (행효녀 정정순 복위)
47. 망부 김씨후인 김상룡 영가 (행효자 김성엽 복위)
48. 망 선망 부모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김기순 복위)
49. 망 조부 이씨후인 이택권 영가, 망 조모 박씨유인 박금덕 영가, 망 부 이씨후인 이인영 영가 (행효자 이동엽 복위)
50. 망 외조부 김씨후인 김재석 영가, 망 외조모 박씨유인 박정녀 영가 (행효녀 이은숙 복위)
51. 망 조부 안동후인 김동균 영가, 망 조모 인동유인 장엄전 영가 (행효자 김태성 복위)
52. 망 조부 함평후인 이영범 영가, 망 조모 금성유인 나연례 영가 (행효녀 수정화 이금주 복위)
53.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백유상 복위)
54. 망 모 전주유인 이득천 영가 (행효녀 류정아 복위)
55. 망 고흥유씨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유행석 복위)
56.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이경주 복위)
57.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민정기 복위)
58.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송혜숙 복위)
59.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이범도 복위)
60.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조화숙 복위)
61.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김동수 복위)
62.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유혜숙 복위)
63.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박인환 복위)
64.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유현숙 복위)
65.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진종득 복위)
66.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이정숙 복위)
67.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신동화 복위)
68.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이승민 복위)
69.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신동윤 복위)
70.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김태희 복위)
71.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이지연 복위)
72. 망 조부 밀양후인 손순근 영가, 망 조모 경주유인 최선봉 영가, 망 부 밀양후인 손윤진 영가, 망 숙부 밀양후인 손금용 영가 (행효자 손영찬 복위)
73.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김효진 복위)

가을 새벽(秋曉)

도전(道全)

단풍잎 바람 불고 풀잎 물결 이는데
 구름 무거운 하늘가, 기러기 행렬 뜬 낮네
 어느 곳 수촌의 사람 이리도 일찍 일어났는가
 노젓는 소리 달을 흔들며 다리 밑을 지나가네.

알아두면 유익한 불교 관계 홈페이지 주소:

불교 TV 방송: www.btn.co.kr

불교 라디오 방송: www.bbsi.co.kr

대한불교조계종: www.buddhism.or.kr

불교신문: www.ibulgyo.com; 불교포커스: www.bulgyofocus.net

불보종찰 통도사: www.tongdosa.or.kr; 법보종찰 해인사: www.heainsa.or.kr; 승보종찰송광사:

www.songgwangsa.org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법회 장소는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에 있는 Meeting Room # 108 입니다. 주소는 55 Buford Hwy, Suwanee, GA 30024 이고, Center 연락처는 (404) 510-6957, 또는 (314)993-0185 입니다. 주소는 55 Buford Hwy, Suwanee, GA 30024 입니다. (문밖에 Close 라고 써여져 있어도 이시간 동안은 저희가 법회가 센터를 사용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108 호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 오십시오.)
- 10월 3일이 추석이라 10월 4일 첫째주 일요일 법회 시작하기 30분전에 송편만들기가 있습니다. 송편을 만든후에 기도에 들어가니 송편만드는 경험을 하시고 싶은 신도님이나 자녀들은 10시 30분까지 사찰로 와 주십시오.
- 10월 18일 셋째주 전법기도 법회때에는 특별 야외법회를 갖습니다. Eckert's Farm 에서 Fuji (부사) 사과도 따고 뷔페식당에서 점심공양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회시간에 공지 하겠습니다.
- 8월 30일 다섯째 주 일요일 10시 30분에 백중 천도 법회를 73위 영가 위패를 모시고 선망부보, 일가친척, 수자영가등 인연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위한 기도를 경건하고 여법하게 봉행 했습니다. 우란분경에 보면 일년에 한번 백중날에 지옥문이 열린다 합니다. 매년 우란분절을 기려 저희 불국사에서는 지극한 믿음으로 효도를 실천하고자 살아 계신 부모님과 돌아가신 조상·친족 및 유자령(流子靈:유산된 태아의 영혼)영가 및 지난 일년간 알게 모르게 원결을 짓게된 모든 짐승 및 벌레 영가들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천도기도를 올립니다. 우란분절 천도제는 출가자의 수행 공덕과 보시자의 공양 공덕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악업의 중생도 구제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전통 의식인 것입니다. 삶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법사가 너와 내가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어 그 인연 공덕으로 무량 복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동참하신 영가 기도 동참금은 \$2150 불 이고, 과일 및 꽃값등 제반비용에 사용된 총 경비는 \$132.35. 불 입니다. 경비를 제외한 \$2,017.65 불은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노인복지 기금: \$3,687.91 불)
-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국 충남 소재 정토사 주지 선오 스님이 사찰을 방문하십니다.
- 부다나라 (불국사)에 상주하시며 주지스님을 도와 포교를 같이 담당 하실 스님이 오십니다. 법납 20년차 되는 지상스님은 출가이후 봉녕사 강원과 동국대학교 선학과를 졸업하셨고 제방선원에서 참선 정진하신 인재 이십니다. 부다나라 대중은 지상스님을 새로운 대중으로 맞이하여 스님으로부터는 부처님 법을 배우고 대중은 스님이 미국에 잘 적응 하실 수 있도록 다방면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부다나라 토요일참법회와 아침 새벽정진 기도에 참석해서 그동안 열심히 정진했던 Mr. Ryan Waller 가 한국 전통 사찰에서 체험 수행을 위해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Temple Stay 를 화계사, 월정사, 통도사, 송광사에서 가집니다. 약 두 달간의 Mr. Ryan Waller 의 Temple Stay 비용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해충 큰스님께서 일백만원 상당의 금액을 Temple Stay 장학금으로 지불해 주셔서 성사되었습니다.
- 2010년 달력불사를 받습니다. 불광출판사에서 달력 400부를 프린트하는 비용 및 신도님 가정으로 발송비용 등 제반비용이 약 \$1,000.00 이 소요 됩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은 부다나라 (불국사) 나 한국 부다나라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2009년 8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38번 임진생 성락 권혁만, 139번 계사생 문수지 권효정, 140번 신유생 진공 권순철, 143기해생 김인주.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이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2010년 달력 불사 (필요 예산: \$1,000.00): 문수지 권효정 \$250.00, 인범 김중환 \$100.00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팀장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